

# 농어촌공사, 지하수담 기술개발 속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 R&D 착수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담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하수담이란 지하에서 모래·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늘리는 동시에, 관정·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을 말한다.

개발을 목표로 한다.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운영공간(테스트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그간 5개 농업용 지하수담(경북 상주,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 2곳)과 1개 생활용 지하수담(강원 속초)을 설치·운영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행사에 참여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지하수담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지하수담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농어촌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담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담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

/세종=김연세 기자 kys@

# K-바이오 유럽시장 공략 본격화 코트라, 기술협력·수출상담 주도

## 스위스서 '바이오헬스 파트너십' 한국관 설치해 현지서 협력 모색 일리아스바이오 등 스타트업 선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포항시와 함께 지난 5~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Swiss Biotech Day 2025)'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파트너링 상담회와 협력포럼으로 구성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은 최근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정책변화와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의 수출 기회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10대 제약사인 로슈(Roche), 노바티스(Novartis) 등 세계 최대 위탁 생산(CDMO) 기업 론자(Lonza) 본사가 위치하는 등 바이오 및 의료 기술 관련 기업이 1200개사 이상 포진해 있다.

올해 12회를 맞는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는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한국 기업 관계자가 지난 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 한국관에서 상담하고 있다. /코트라

산업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40개국의 제약·바이오 관계자와 투자자 25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패널 토의, 스타트업 피칭 등을 진행했다.

코트라와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장 내 국가관을 구성하고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파트너링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현지 기업인들과 협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자체 엑소좀 플랫폼 기술로 염증 질환 및 중추신경계(CNS) 등 다양한 장기 타겟 치료제를 개발하

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에서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공식 무대에서 피칭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경호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장은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와 같은 유럽 현지 바이오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우수 환경기업 발굴... 글로벌 판로 확대

## 환경산업기술원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

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에코스퀘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환경산업의 선도 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700억 미환급' 티메프 시정명령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 미환급액 회생계획안에 포함 명령 소비자 확인 절차·개별 통지도 병행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늦게 한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며 2023년 12월 3일 ~ 2024년 7월 24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 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주지 않았다.

위메프도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 판매를 중개하며 2024년 3월 27일 ~ 7월 30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대금 약 23억 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



티메프 피해자 연합이 13일 (주)티몬 사옥 앞에서 우산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정산 기자

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고용부 '중대재해 사이렌' 발간

## 산업현장 위험요인 예방자료 수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 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람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을 신속 전파하고 있다.

개설 첫해인 2023년에는 4만 7000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에는 7만 7000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이렌 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 임직원 안전 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 건이 담겼다. 또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활용 사례도 수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9 | 해질 / 19:28

5월

**8일** (木)

음력 : 4월 11일

수도권 날씨

**10~2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백령도 9/15

피주 7/24

인천 11/22

수원 9/24

평택 8/25

연천 7/24

동두천 8/25

가평 6/25

서울 10/25

양평 8/25

용인 9/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 '관세전쟁' 美·中, 이번 주 스위스서 회담... "무역 협안 논의" /사진 뉴시스  
 ▲ "트럼프,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으로 개명 추진"

▲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로 130명 사상  
 ▲ "민족 대이동"... 中 연휴 맞아 '14억명' 움직였다

▲ 젠슨 황 "中 AI 시장 2~3년 내 69조원... 놓치면 엄청난 손실"  
 ▲ '91세' 다이키히토 상왕, 심장질환 진단에 13년 만 입원